

## 삼평리 농촌 할매들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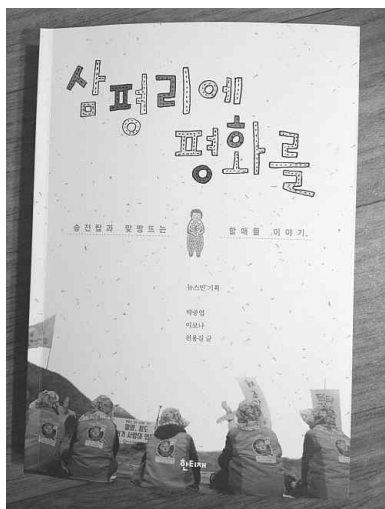
백 창 옥 (목사, 대구 새민족교회,  
청도송전담반대대책위 공동대표)

### 1. 지극히 평범했던 할매들

소골댁 김선자 할매(76세), 석동댁 박순쾌 할매(78세), 이어댁 이억조 할매(76세), 나동댁 이외생 할매(78세), 부산댁 이차연 할매(78세), 가촌댁 조봉연 할매(80세), 중대댁 최계향 할매(76세), 동촌댁 최남이 할매(79세), 월배댁 추호남 할매(73세), 성곡댁 김춘화 아주머니, 쌍둥이댁 이은주.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들이다. 할매들 평균 연령은 77세. 그러나 한국전력의 전기에너지 수급정책의 허구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균열을 낸 전사(戰士)들이다.

‘삼평리에 평화를’은 삼평리 투쟁강령 1조이다. 삼평리에 와 본 사람은 이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에 새삼 놀란다. 참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 평화를 한전과 정부는 철저히 짓밟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호를 외치든, 노래를 하든, 집회를 하든 간에 항상 말미에는 ‘삼평리에 평화를’ 한 목소리로 외친다. 삼평리에 다시 평화를 되돌리자는 신념이다.

한편, 이 제목을 따서 책을 냈다. 도서출판 한티재에서 발간한 『삼평리에 평화를』이다. 할매들의 인생을 담았다. 이 책을 보면, 할매들 살아온 인생은 바로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이다. 똑같다.



할매들은 19살, 20살에 삼평리에 시집왔다. 식민지살이와 전쟁을 겪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나라, 그 중에도 시골 벽촌으로 시집온 할매들의 삶이 어떠했겠는가? 지지리도 가난한 시집살림에 시부모는 물론이고 시댁식구 모조리 건사하며 자식 키우며 살아온 세월을 말해 무엇하랴. 자식 다 키우고, 이제 늘그막에 자식 봉양 받으며, 손주 크는 거 보는 재미로 설렁설렁 여생을 보내야 하는 할매들이다. 또

마을회관에 모여서 오순도순 민화투나 치고 소소한 재미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노인들이다. 도시든 농촌이든 여느 마을 같으면 말이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는 시골노인네들이 평범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을 가만 두질 않았다. 할매들은 무려 세 차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거나 ‘자다가 흥두께’를 맞았다.

한전이 정부를 앞세워서 소위 대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 마을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뜻밖에도 할매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보자. 할매들이 자본과 권력에 맞서 싸운 이야기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이제 그 사건 속으로 가보자.

## 2. 자식들에게 미안한 할매들

2009년 3월 어느 날, 할매들은 이 날 처음 한전 놈들을 대면했다.(‘한전

놈들'은 할매들이 한전을 부르는 공식호칭이다. 이 단어 하나만 봐도 한전을 향한 할매들의 억하심정을 엿볼 수 있다.) '한전 놈들'이 송전탑 공사한답시고 인부들을 동원하여 삼평리에 들이닥친 것이다. 한전 놈들은 마을 회관에 먹을 것을 차려놓고 주민들을 초대해서는, 앞으로 이곳에 송전탑을 세워야 하니 많은 협조 바란다느 썰을 풀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게 뭘 일이나 싶었다. 송전탑이라니! 더군다나 345,000볼트 초고압송전탑이라니. 그런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선 마을은 사람 건강도 해치고 동물도 못 살고 작물도 안 된다는데, 게다가 논이든 밭이든 땅덩어리가 농협 담보도 안 되고, 재산가치가 무용지물이라는데...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마치 계엄군이 포고문 살포하듯이, 한전 놈들이 살포한 송전탑 공사계획에 마을은 순식간에 큰 동요가 일어났다. 그 다음 수순은 늘 그렇듯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경위를 알아보고, 반대활동에 들어간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가닥 하는 마을의 남자들이 앞장서서 일을 제대로 수습할 줄 알았다. 그리고 이견없이 마을주민 모두가 한 뜻이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군가. 이런 악한 일에 잔뼈가 굵은 한전이다. 한전 놈들은 늘 그랬듯이, 반대자들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 그들이 항상 써먹는 수법은 소위 '마을발전기금'이다. 마을에 송전탑을 세우는 대신, 그 마을에 돈다발을 던진다. 이 돈다발이 던져지는 순간, 한 마을은 두 쪽이 난다. 없이 살지만, 조상대대로 너나없이 정을 나누고, 한 공동체를 유지해 온 마을이 이 돈다발로 흥해바다 갈라지듯이 썩 갈라진다. 돈을 받자는 측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측으로 갈린다. 돈을 받자는 측의 주장은 이렇다. 저 거대기업 한전과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느냐, 또 한전 뒤에는 정부가 버티고 있는데, 저들을 어찌 감당할 수 있느냐, 일치감치 단념하고 실속이나 차리자는 입장이다. 또 한 가닥 하며 앞장선 남자들은 한전으로부터 생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또 감언이설과 회유에 넘어가서 어느 순간 한전의 동조자로 변신해 버린다.

삼평리도 예외없이 똑같은 운명을 겪었다. 이제는 주민들이 길을 가다 마주쳐도 눈도 안 마주친다. 형제사이드 원수시간이 돼버렸다. 어쩌다 마

을회관에서 회의라도 열리면, 싸우다 시간 다 보낸다. 이 모든 불상사의 근원인 한전은 어떻게 이런 가공할만한 일을 저리도 쉽게 저지르는가? 바로 '전원개발촉진법'이다.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8년에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에 기대어 한전은 한 마을을 축대밭을 만들면서 수십 년 자기들 좋을 대로 송전탑을 꽂았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세 가지 면에서 철저하게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첫 번째는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하천법·수도법·농지법 등 19개 법령에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 한 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세 번째는 마을주민들이 2009년 3월, 한전 놈들이 마을에 들이닥쳐 서야 송전탑 계획을 알았다고 했듯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당사자들을 완전히 소외시킨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주민 처지에서 무엇보다 중요합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주민들은 왜 하필 송전탑이 이 마을을 관통하느냐고 수없이 물었지만, 한전은 한 번도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전은 한전 관계자, 사업 관계자, 주민 대표, 지역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지만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회 결정이 강제력이 없을 뿐 아니라 한전이 임의로 내부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거나 아예 위원회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 입지선정과 경로 결정에 주민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공시공람을 했다지만 지극히 요식적이어서 정작 해당 마을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날이 올 때까지 완전히 모르고 지나간다.

내가 삼평리 송전탑반대 투쟁에 할매들과 함께 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다. 짚고 뚫뚫한 것들은 다 어디가고 할매들이 앞에 서는가 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 가닥 하는 남정네들은 이미 다 한전의 회유에 넘어가 버렸다.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단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할매들이다. 그럼, 할매들은 왜 늘그막에 이런 힘든 여정에

나셨는가? 살아생전에 상상도 하지 못한 투쟁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모두 옳다는 믿음으로 한 평생 살아왔던 분들이 말이다. 바로 여기에 어머니의 모성이 본능적으로 작용했다. 『삼평리에 평화를』 책에도 써 있듯이, 할매들은 유독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공부시키지 못한 미안함이 지금까지도 가슴 한켠에 있다. 그렇게 자식들을 제대로 건사하지도 못하면서 손이 갈퀴가 되도록 평생 땅만 보고 살아 온 댓가가 논 한 마지기 밭 한 뼛이다. 그러니 이 논과 밭은 할매들의 목숨이다. 또 미안한 자식들에게 할매들이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다. 그런데 그 땅이 쓸모없게 돼버린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찌 되노, 자식들은 이 땅에서 어찌 사노, 이것은 안 될 일이다. 이 모성애와 자연이 융합한 마음이, 할매들이 마을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가 된 이유고, 한전 농들과 정부가 벌이는 소위 국책산업에 맞짱을 뜨게 한 배경이다.

### 3. 참 뻗뻗하셨던 할매들

2009년 3월 선전포고를 하고 물러난 한전 농들은 북경남발전소부터 대구인접 지역인 가창까지 송전탑을 끄는 마을들을 마을발전기금으로 회유하면서 40기의 송전탑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삼평리를 끼고 있는 22호기, 23호기, 24호기이다.

한전이 세우는 송전탑 계획은 이렇다. 부산 바로 위에 있는 고리에 신고리 3호기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신고리 3호기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745,000볼트 전기가 밀양을 통과한다. 그리고 이 전기를 창녕에 있는 북경남발전소에서 345,000볼트로 변압해서 청도라인을 거쳐서 대구 등 인접 대도시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농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꿔서 어느 게 진실인지는 분명치 않다.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겪은 한전은 거짓말을 잘하는 참 나쁜 집단이다.

여기서 신고리 3호기 핵발전소가 얼마나 하자(瑕疵)투성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점은 따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745,000볼트 초고압송전탑을 막기 위해 10년을 싸워온 밀양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똑같은 전기로 청도 삼평리 할매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2012년 여름, 삼평리 할매들과 송전탑 반대주민들은 소수였고 고립돼 있었다. 그때는 아직 청도 345,000kv 송전탑반대대책위를 구성하기 전이었고, 연대자들이 삼평리 상황에 대해 잘 모를 때였다. 할매들은 꼭두새벽부터 힘든 몸을 끌고 산꼭대기 송전탑 현장에 올라가서 나무를 부둥켜 안았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한전은 힘으로 밀어붙여 할매들을 떼어 놓고, 22호기와 24호기를 세웠다. 이제 남은 건 마을 한 복판에 있는 23호기다. 할매들은 생각했다. 어차피 한 기라도 못 서면 전기는 흐르지 못한다. 23호기 하나만 죽을 각오로 막기로 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입구에 천막을 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공사를 감시했다. 그러던 중 2012년 7월 아비규환의 날이 왔다. 한전 놈들은 밧돼지같은 용역들을 수십 명 데려왔다. 용역들은 공사현장에서 농성하는 할매들을 강제로 질질 끌고 내려왔다. 사람을 말이다. 이때 할매들이 당한 정신적 육체적 수모는 말도 못한다. 우리에게 그 때 일을 말씀할 때마다 할매들은 몸을 떨며 힘들어했고, 우리는 몸 둘 바를 몰랐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 걱정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다행히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할매들이 몸을 던진 탓인지, 아니면 밀양 송전탑 공사가 여론악화로 여의치 않았던 때문인지, 23호기 공사는 송전탑 다리를 문을 구덩이만 파 놓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됐다. 2차 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할매들을 상봉한 날이 왔다. 2012년 12월 25일 주님 오신 날이다. 이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기독교회의 전통에 따라 대구경북의 착한 신자와 민주시민들이 청도 삼평리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할매들은 기독교예배를 생전 처음 하는 것 같았다. 뻣뻣하고 어색했다. 그리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뒤에 알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할매들은 기독교 예배가 처음이었다. 평생 자식 키우고 농사만 짓고 살았지 교회에는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다. 또 그때 할매들은 지쳐 있었다. 그동안은 우야 댕든 간에 죽을 등 살 등해서 막긴 막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노, 무슨 힘으로 저걸 막노 하면서 하루하루를 근심으로 보내던 차였다. 그러니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겠나, 교회 다니는 손님들이 온다고는 하지만 아직 실감이



**성탄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2012.12.25)**



**평화콘서트를 열고, 이날 송전탑반대대책위를 결성했다(2013.3.1)**

나질 않았던 것이다. 그랬던 할매들이 이제는 어찌나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예배하시는지! 정말 격세지감이다.

그날 성탄예배를 드리고 난 후, 우리는 할매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해가 바뀐 2013년 3월 1일 ‘삼평리에 평화를’ 평화콘서트를 열고 그 날 저녁에 ‘청도 345,000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삼평리대책위)를 결성했다. 그리고 나는 공동대표가 됐다.

그 뒤부터 삼평리대책위는 할매들과 함께 했다. 걸을 지켜드렸다. 할매들이 낮밤을 거르지 않고 지켜왔던 농성장을 밤에는 우리가 당번을 썼다. 할매들 잠이라도 편히 주무시라고, 검찰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이 꼭 묻는다. 삼평리대책위는 어떤 일을 하나요? 그걸 어찌 시시콜콜히 말하랴, 단

한마디로 답한다. 할매들과 함께 논다고 그랬다. 우리는 한전을 규탄하러 지사를 가든 본사를 가든, 또 경찰서를 찾아가서 불공평한 공권력에 항의 하든, 또 전국 각지에 있는 다른 투쟁사업장을 가든 항상 할매들과 함께 어울렸다.

23호기 송진탑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삼평리평화공원으로 개칭하고, 시시때때로 행사를 벌였다. 대구경북 또 전국에서 민주시민들이 청도 삼평리를 기억해 달라는 취지로.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전국에서 연대자들이 와서 할매들 손잡아주면서 할매들 얼굴은 자연스레 퍼졌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피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은 견딜만하다. 이것은 만물의 이치다. 마을사람들끼리 척이 저서 심난했던 할매들은 새로운 이웃을 만났다.

대책위와 연대자들은 삼평리평화공원에 여러 가지 평화 시설물들을 설치했다. 어느 날 연대자들이 평화공원에 허수아비를 세우면 또 다른 연대자들이 와서 허수아비에 옷을 입혀 주었다. 또 누구는 텃밭을 만들어서 각종 꽃과 작물을 심었다.

2013년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하늘은 평화공원 입구에 컨테이너를 떨어뜨려 주었다. 이 컨테이너는 2014년 7월 21일 한전과 경찰이 침탈하기 전까지 상황실로 잘 썼다. 또 2014년 3월 1일에는 ‘삼평리 평화를 위한 대동장승제’를 열고, ‘탈핵 탈송진탑 장승’과 ‘생명평화평등 장승’을



‘탈핵 탈송진탑 장승’과  
‘생명평화평등 장승’을 세웠다

세웠다. 그리고 2014년 4월 어느 날에는 현장으로 올라가는 산 중턱 경사로에 하늘에서 망루를 떨어뜨려 주었다. 대책위 일꾼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망루를 누가 지었냐고 묻기에 천사가 떨어뜨려 주었다고 답했더니 검사는 장난하느



냐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 일꾼은 검사님은 천사를 믿지 않는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뜨려놓은 시설물들에 대해 한전 놈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무려 2억 2천만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돈으로 일어난 자 돈으로 망하리랴!

#### 4. 돈질에도 끄떡 않는 할매들

2014년 7월 21일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만큼이나 우리에게 각인된 날이다. 삼평리가 한전과 정부에게 침탈당한 날이다. 한 달 여전한 6월 11일 한전은 밀양행정대집행을 감행했다. 그래서 네 개 마을 송전탑이 들어설 자리에 있는 움막을 강제 철거했다. 밀양대책위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삼평리대책위는 밀양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삼평리에도 공사강행이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런데 한전이 술수를 부렸다. 밀양 행정대집행을 본 따서 삼평리 현장에 대체집행을 청구했다. 법원의 집달리나 용역이 대신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상한 청구였다. 대체집행 소송이 잡힌 날이 2014년 7월 25일이다. 우리는 이 대체집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삼평리 송전탑공사가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모집 중이었다. 그러나 대체집행 심리가 있는 그 주 월요일 새벽 야음을 틈타서 한전과 경찰 수백 명은 삼평리에 몰래 들어왔다. 기습침탈을 한 것이다. 이들은 평화공원에 있는 망루, 컨테이너, 장승 등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고 펜스를 쳤다. 6시경 소식을 접한 우리는 허겁지겁 삼평리로 달려갔다. 할매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전 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른 아침이어서 대책위 숫자는 너무 적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악착같이 기습침탈공사를 항의하다가 전원 연행 당했다. 경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들을 지내고 돌아온 삼평리는 뜨거웠다. 전국에서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삼평리 침탈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그렇게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날부터 시작해서 겨울이 오기까지 우리는 삼평리 현장을 지켰다. 경찰은 조금만 공사를 방해해도 업무방해라는 범

으로 우리를 압박했다. 한전은 공권력이 이렇게 뒤를 봐주니 이보다 더 편한 공사는 없었다. 경찰은 한전의 '시다바리'였다. 삼평리 현장에서도 뼈저리게 느낀 점은 이 나라 공권력은 일개 사기업의 문제해결업체라는 비루한 현실이다.

우리는 업무방해라는 압박과 사람 수가 열세인 상황에서도 사람이든 차량이든 순순히 드나들게 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항시 현장 출입구 앞에 상주했다. 그러므로 공사차량이 드나들 때마다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하루에도 수차례 격렬한 싸움을 반복했다. 한번 충돌하고 나면 우리는 모두 널브러졌다. 그래도 우리는 피하지 않고 현장을 지켰다. 그러는 와중에 넘어지고 다치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지옥이 이럴까 싶은 아수라장을 매일 겪자니 할매들이 늘 걱정이었다.



새벽침탈에 항의하는 주민들(2014.7.21)



연행당하고 있는 백창욱 목사

할매들이 공사장 출입구나 공사차량 통행을 막고 있으면 여경들이 할매들을 사납게 들어낸다. 그 와중에 할매들은 수시로 다치고 실신해서 119차에 실려갔다. 처음에는 숫자를 세다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응급실 행에, 숫자 세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실려간 할매들은 링거 한 병 맞고는 또 금세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여름과 가을을 건넜다. 싸우고 건넌다는 사이에 할매들

과 우리는 정말 급속도로 더 가까워졌다. 어느 누가 이렇게 자기 일처럼 매달린단 말인가? 할매들은 “목사님과 연대자들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즉에 밋혀 죽었다”고 고마워한다.

2012년 성탄절 예배 때는 어색하고 뻣뻣했던 할매들이 침탈 이후에는 전혀 달라졌다. 우리는 정말 기뻐 데가 하늘뿐이었다. 간절했다. 다행히 필자가 목사인 까닭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 수시로 하는 집회에서 나는 약자 편이신 아웨 하나님에 대해 증거했고, 할매들은 동병상련인지라 너무나 잘 알아들었다. 또 기독교단체에서 와서 기도회를 열면 참으로 진지하게 예배에 동참했다. 필자가 연행 당했을 때는 할매들이 선도해서 백목사가 무사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다.

할매들의 기개를 새삼 알아본 것은 2014년 추석 때였다. 진압하는 재미에 들떠있던 청도경찰서장은 할매들을 위로한답시고 한전에 조용해서 돈을 받았다. 그리고는 봉투에 떡 허니 자기 이름을 써서 오백만원에서 백만원씩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할매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 서장은 할매들이 그 돈을 받고 현장에 나오지 않고 조용히 있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웬걸, 할매들은 돈 봉투를 고스란히 대책위에 가져와서 신고했다. 서장이 이것을 놓고 갔다고, 이게 그 유명한 '청도서장 돈 봉투 살포 사건'이다. 서장은 할매들을 알봐도 정말 한참 알봤다. 그깟 몇 백만원 돈질에 물러섰을 것 같으면 애시당초 시작도 안했다. 보도가 난 그날로 서장은 직위해제당하고, 돈을 전달한 한전 직원, 시공사 직원과 함께 기소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송전탑 공사 중에 한전 놈들과 무수한 충돌을 한 결과는 우리를 모두 범죄자로 만들었다. 필자도 대책위 대표로서 집중표적이 된지라 두 번 연행당하고, 두 번째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다행히 기각돼서 석방됐다. 필자뿐만 아니라 연대자들과 삼평리 주민들이 7월 21일 침탈 이후 부딪힌 건으로 30여명이 80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개의 혐의가 업무방해와 상해 같은 거다. 재판결과는 벌금폭탄이다. 이 벌금을

연대자 개인에게 책임지울 수는 없는 일, 대책위는 삼평리 법률기금 1억 모금이라는 목표로 3월 6일 후원의 밤 행사를 했다. 예상을 뛰어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원행사에 왔다.

## 5. 다시 일어서는 할매들

지금 삼평리마을 복판에는 23호기 송전탑이 우뚝 서 있다. 공권력이 강력하게 한전을 비호하는 가운데 공사침탈을 강행한 이상, 송전탑이 서는 건 예상한 일이다. 그럼 할매들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체념하고 뿔뿔이 흩어졌을까? 예수님 죽음 이후 고기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처럼? 아니다. 농성장 역사가 한 상징이 될 것이다. 처음 할매들이 지은 농성장은 공사장 현장에서 가까운 한 농민의 창고 옆에 허름하게 지은, 간신히 들이 누울 수 있는 비좁은 천막이었다. 이 농성장에서 할매들이 교대로 겨울을 났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주운전차가 이 농성장을 덮쳤다. 식겁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창고 주인이 농성장이 부담돼서 옮겨달라고 했다. 그래서 도로 건너편 대책위 주민의 논 한 쪽에 움막농성장을 지었다. 삼평리 투쟁 때 이 농성장은 본부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논바닥 위인지라 여름에는 늘 물이 넘쳐서 애로가 많았다. 송전탑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시즌 2' 투쟁을 위해 농성장을 대대적으로 개비했다. 그래서 한전 놈들이 탈취한 컨테이너를 되찾고 또 컨테이너를 하나 더 구입해서 공간을 넓혔다. 족히 오십 명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는 삼평리 농성장이 전국에서 제일 넓은 농성장일 것이라고 자랑한다. 실제 그렇다.

'시즌 2' 투쟁은 송전탑이 섰다고 우리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할매들과 대책위는 새롭게 세 가지 방향으로 투쟁을 결의했다. 첫째는 삼평리 마을공동체 회복이다. 언제까지 원수로 살 수는 없는 일, 우리는 할매들도 건사하고 마을도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 일꾼 두 사람이 아예 집을 구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삼평리 주민으로 살고 있다. 둘째는 법적투쟁이다. 법정에서도 한전공사의 무도함을 고발하고, 우리 투쟁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기조로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민변)에서 수임료 없이 실비만 받고 삼평리투쟁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변호해 주고 있다. 검사가 아무리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재판에서는 우리도 변호사가 있으니 웬만큼은 방어가 된다. 셋째는 비민주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한전의 에너지수급정책이 착한 에너지수



**‘시즌 2’투쟁을 앞두고 새롭게 준비한 농성장 앞에 선 할매들**

급정책이 되도록, 투쟁의제를 확장하기로 했다. 골자는 민주적 전기정책과 탈핵이다. 전기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만큼,

한전의 에너지수급정책이 얼마나 허구인가는 하승수 님의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에서 잘 말했다. 우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공개로 밀실에서 짜다. 계획 초안은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다. 그리고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거치지만, 이 위원회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이다. 그래서 전력수급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단지 몇몇 관료들과 전문가들, 이해집단들이 계획을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전기위원회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확정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로 끝난다. 공개적인 토론의 과정은 없다. 객관적이고 독립성 있는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비민주적인 졸속 처리가 졸지에 국책사업으로 둔갑한다. 이권이 개입되어 불필요한 발전소

나 송전선 건설을 추진해도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이 된다. 말하자면 전기가 필요해서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원전마피아, 전력마피아들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다하게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를 실어 나른다고 초고압 송전탑을 짓는 것이다. 한 국가의 전력정책이 이권 때문에 아무런 합리성도 없이 막장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하승수,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34쪽, 42쪽)

삼평리대책위는 밀양대책위와 연대하여 소수 이익집단만 위하는 한전의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전기수급정책을 민주적인 전기정책으로 돌리도록 계속 싸워나갈 계획이다. 7년여의 긴 투쟁과 지난 여름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던 그 처절한 삶에서 비록 내상을 입었지만, 할매들 표정은 의외로 밝다. 대책위 일꾼들은 ‘시즌 2 투쟁’을 위해 할매들과 계속 교류하고 민주시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지지연대방문을 오기 때문이다. 할매들은 이미 유명인사가 됐다. 한 이름하는 활동가들이 할매들 앞에서 경의를 표한다. 대구경북의 웬만한 시민노동단체의 큰 모임에는 자리를 빛내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작년 11월과 12월에는 2박 3일로 전국의 투쟁현장을 돌면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강행군을 다녀오기도 했다.

인생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 할매들은 비록 평생 가꿔온 땅이 훼손당했지만, 순응하지 않은 댓가로, 이 세상 자본과 권력이 움직이는 세상 문리를 깨치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관적 통찰로 정치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정확히 꿰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것만 해도 할매들은 값진 인생을 사신 거라고 필자는 할매들을 위로한다.

할매들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한다. “철탑을 다 짓더라도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전 손으로 잘못했다고 철탑 뽑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세월 갈수록 좋은 세상 오겠지요. 이 정부도 똑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바뀔시다” 도대체 이런 결의는 어디서 나오는가? 가장 연약한 할매들인데 말이다. 약자와 함께 하시며, 가장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야웨 하나님의 안목에서 말하자면, 할매들이 전쟁의 맨 앞에 섰다는 것은 이 시대를

우리는 경중이다. 이제 한전이 자행하는 마구잡이 송전탑사업방식은 유효가 다 됐다는 뜻이다. 더 이상 사람을, 마을을, 공동체를 너희의 천박한 자본탐욕 논리로 망가뜨리지 말라는 하늘의 경고다. 한 마을을 무참히 짓밟으며 수십 년 자행해 온 전기공급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면적 방향선회를 하라는 촉구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 글을 맺으면서

신앙고백적으로 말하자면, 삼평리 할매들을 만난 덕분에 기독교선교에 대해서도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선교의 기본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것, 그들과 형제애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바울이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전 9:21)는 고백은 그들을 대상, 수단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과 형제애를 나누었다는 말이다. 형제애는 어떻게 생기는가? 그들의 고난형편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함께 겪는 것이다. 이 점에는 필자는 할매들과 고난을 함께 했다. 할매들이 필자를 보면 반색하며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것은 나를 형제로 여긴다는 뜻이다. 그러니 내가 믿는 예수와 기독교가 저분들에게도 얼마나 반갑겠는가. 기독교에 대해 생면부지인 할매들에게 우리 편인 백 목사가 믿는 종교라는 것, 예수가 친숙하게 다가섰다는 것, 필자는 그것으로 족하고 주님께 감사한다. 農